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보고

I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1. 진단 개요

- 진단 시기 : 2016. 4 ~ 5월(설문완료 5월11일)
- 대상 기간 : 2015. 05. 01. ~ 2016. 04. 31. / 1년간
- 진단 분야 및 대상



※ 제외 : 감사실장(평가주관 부서장), 장기교육파견 4명

- 진단 기관 : (주)레드휘슬 ⇒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
 - ▷ 응답 비밀 보호 및 응답률 제고 ⇒ 부서, 성명 등 코드화 관리

2. 진단 참여율

-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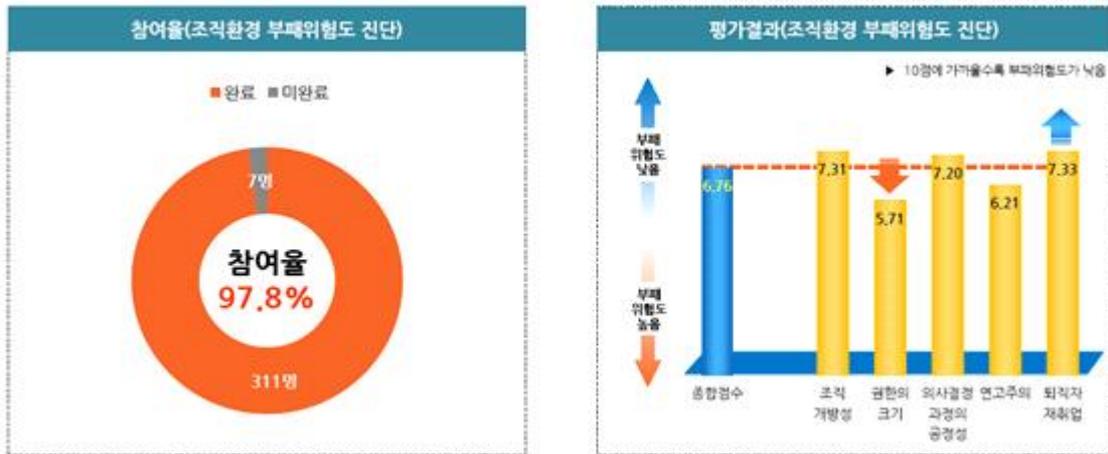
구 분	평가 대상	평가 완료	미완료(거절)	평가 참여율
조직환경 진단	318	311	7	97.80%
업무환경 진단	1,774	1,742	32	98.20%
청렴도 평가	1,293	1,256	29	97.14%

※ 전체 유효표본은 하위평가단이 3개 분야 평가에 모두 참여하고, 실제 직원 1인이 여러 명을 평가하여 공단 전체 직원보다 많음

- 유효표본 추출방법 : 단순 무작위 추출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1)

○ 평가 결과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



※ 퇴직자 재취업(7.33)항목 가장 긍정적, 권한의 크기(5.71) 가장 부정적

○ 본부별 조직환경 평가분석 결과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

구분	총합점수 (10)	조직개방성 (10)	권한의 크기 (10)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10)	연고주의 (10)	퇴직자 재취업 (10)
전체 평균	6.76	7.31	5.71	7.20	6.21	7.33
경영본부	7.00	7.52	5.94	7.52	6.58	7.44
운영본부	6.76	7.32	5.64	7.34	6.35	7.15
관리본부	6.69	7.24	5.70	7.02	6.02	7.44

○ 타기관 조직환경 평가 비교 분석 결과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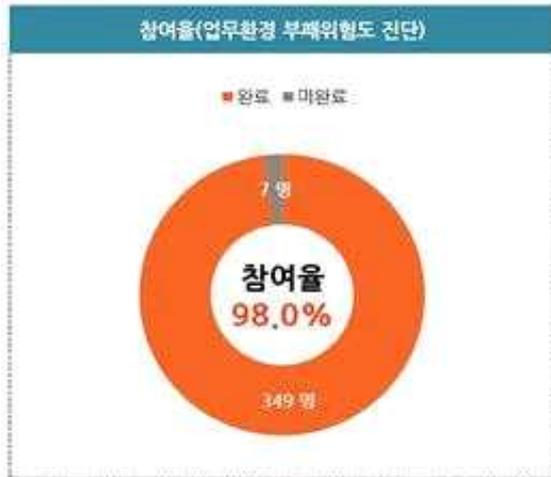


※ 공공기관 전체 대비 0.62점 높게 나타났고, 특히 조직개방성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함.

1) 조직 개방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공단 조직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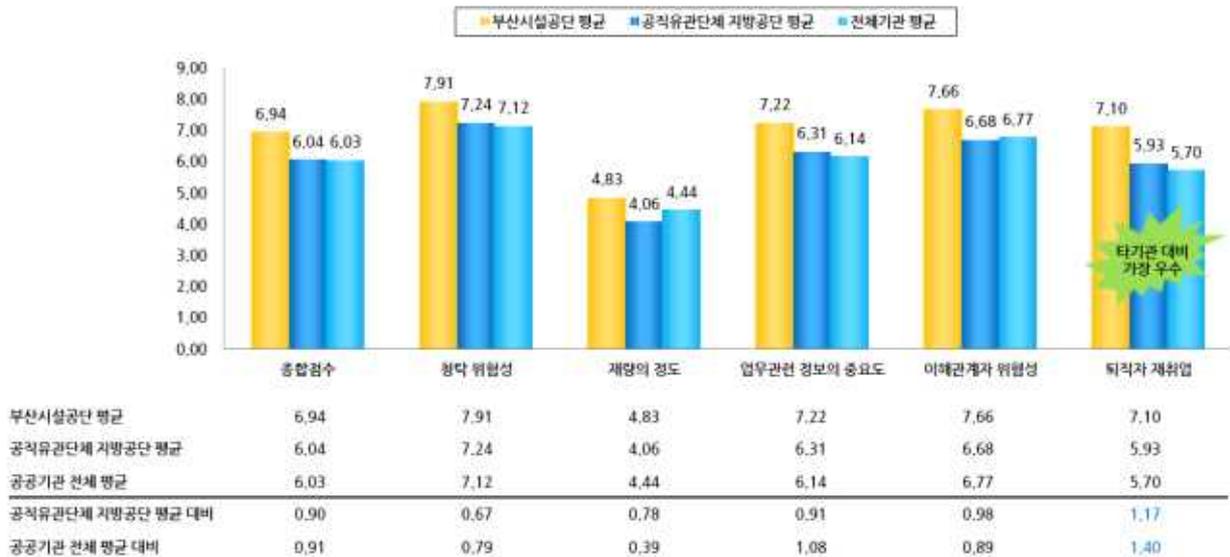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2)

○ 평가 결과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



※ 청탁위험성(7.91)항목 가장 긍정적, 재량의 정도(4.83) 가장 부정적

○ 타기관 조직환경 평가 비교 분석 결과 ⇨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모든 항목이 유사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퇴직자 재취업 항목은 유사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2)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

Ⅲ

종합 분석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전체 평가자 318명 중 3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6.76점(10점 만점)으로 2015년 대비 0.71점 상승하였으며 유사기관평균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소속부서에 따른 직원들의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인식수준 격차는 0.31점으로 소속별 인식정도의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남
- 부패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6.3%로 양호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권한의 크기]와 [연고주의]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전체 평가자 356명 중 3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점수는 6.94점(10점 만점)으로 2015년에 대비 0.50점 상승하였으며, 유사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위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인식수준 격차는 1.77점으로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
- 부패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0.2%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재량의정도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함